

16_성사란 무엇인가

성사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

하느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게 하는 거룩한 표징. 뭘까요?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사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 하느님이 시면서도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야말로 인간 사정에 적합한 성사를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전해 주시려고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성사를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우리 인생의 각 단계와 연관돼 있습니다.

일곱 가지로 이루어진 성사

세례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견진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며, 성체성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게 됩니다. 이 세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 입문 성사라 부릅니다. 또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를 우리는 치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곱 성사는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그 안에서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면

성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만큼 더 참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일곱 성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극하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세례성사 때는 우리를 씻어주는 물로써, 견진성사 때는 우리의 이마 위에 바르는 성유를 통해서, 성체성사 안에서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또 성품성사에서는 당신이 뽑으신 이들의 거룩한 봉사 안에서, 혼인성사에서는 남녀가 하나 되고 자녀를 낳아 성가정을 이루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고해성사 안에서는 우리가 고백한 죄를 지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통해서, 병자성사 때는 아파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성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나는 창구이며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또 성사는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공적 예식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오시는 하느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멘.

17_세례성사1-세례성사의 의미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친교를 이룹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성사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성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는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물로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지만, 점차 머리에 물을 붓는 예식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물로 ‘씻음’은 몸의 더러움을 없애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됨을 상징하는데요.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물은 세례성사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사제는 영세자의 이마에 물을 세 번 부으며, 또는 물에 잠기게 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성사는 세례받는 이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표지인 인호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며 하느님께서 부르실

이름도 새롭게 짓게 됩니다. 이를 세례명이라고 하는데요. 세례명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인이나, 그 외 ‘노엘’, ‘임마누엘’, ‘그라시아’ 처럼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이름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주교나 신부, 또는 부제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신도뿐 아니라 비신자라도 가톨릭교회의 뜻을 따를 지향이 있다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교회가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세례받을 사람의 이마에 자연수를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 주는 세례를 ‘임종 세례’ [대세(代洗)]라고 합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의 시작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걸까요?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1베드 3,21)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하느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참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느님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세례 서약 갱신으로 마귀와 유혹을 끊어버리고, 신앙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로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로써 성령과 함께 살게 됐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 줄 성령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6,4) 아멘.

18_세례성사2-유아 세례

유아 세례의 의미와 방법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 새 생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아 세례!

네, 맞습니다. 유아 세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나 아직 철이 들지 않아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면 백일을 넘기지 않고 세례를 주도록 권장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 제47조) 특히 조금이라도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교회법 제867조 2항)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즉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지은 죄가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있기에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기는 세례성사로 원죄마저 없게 되어 온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먼저 성당 사무실로 찾아가 유아 세례를 신청합니다. 유아 세례는 대개 여럿이 함께 받아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할 때는 부모 중에 적어도 한 사람, 혹은 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세례식 날짜가 정해지면 부모는 아기에게 대부모와 세례명을 정해 줘야 합니다. 아기의 대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기의 세례명은 성인의 이름이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 중에 잘 살피서 부모가 정해 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아직 성체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도 모르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에 대해 교회는 답합니다.

“네! 아주 합당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가 아니라 그 부모와 대부모의 신앙을 보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세례식 때 어른 세례와 달리 세례 초를 아이에게 주지 않고 대부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즉 부모와 대부모가 나중에 그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서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잘 돌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체를 위한 교육도 이뤄져야

이후에 아이가 성체성사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영성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영성체를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첫영성체 교리교육이라고 합니다. 첫영성체 교리교육은 보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회법적으로는 원래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첫영성체 교리교육 때 함께 참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비신자 교육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엔 성당에 직접 나

가지 않고도 교육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편을 통한 ‘통신 교리’ 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통신 교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참!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시작하면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교리 등 그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참여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 이제 신앙인 가정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엔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많다고 하니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9_견진성사

견진성사의 의미

어린아이가 나이가 차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고, 나아가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윽고 때가 되면 우리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견진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다짐하지만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미숙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실천하기에 힘과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협조자, 곧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 14,26)

그 약속대로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 은총을 받습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세례 때 서약한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주 두려움에 떨었고 의심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두려움 따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굳세게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견진성사로 성령을 받아 하느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큰 힘을 믿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을 때 우리는 이마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기름 바름으로 우리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서 성령께서 주시는 일곱 가지 은총, 성령칠은(七恩)을 받습니다. 성령칠은은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말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칠은이란

그럼 성령칠은은 어떤 선물일까요?

먼저 ‘지혜’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줍니다.

둘째, ‘통찰’은 진리를 깊이 통찰해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의미나 교리를 깨닫도록 해주고, 상징과 표지 안에 감추어진 영적 실재를 보게 해줍니다.

셋째, ‘의견’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해줍니다.

넷째, ‘용기’는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게 하고 유혹과 장애를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지식’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합니다. 이 은사를 통하면 영혼이 처한 상태나,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경’은 자녀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경외’는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풍부히 받은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는 결국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입니다. 충만한 성령의 작용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깨닫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20_성체성사1-성체성사의 의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카 음식상에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 26,26)

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마태 26,27-28 참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즉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희생 제사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

그렇다면 성체성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체성사는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업적과 은총에 대해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영광에 대해 인간 스스로는 맞갖은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합당한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체성사는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성부께 바치신 것을 기념하여 가톨릭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부께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십자가 제사의 기념이고 재현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였던 것처럼 성체성사 역시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성찬례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현존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있되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또 의미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재적(實在的)으로, 또 실체적(實體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신 동그란 빵과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성체성사는 또 예수님이신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모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성체성사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체현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_성체성사2-영성체

영성체의 효과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 성체를 모십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영성체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 혹은 어떤 변화를 줄까요?

영성체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성체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는 세례성사 때 받은 새로운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또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성체는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들을 깨끗이 없애주고,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영성체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굳건한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굳건한 사랑의 유대로 이끌어주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와의 일치도 강화시켜 줍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는 영성체. 그 영성체의 은총이 온전히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 고해성사와 공심재(空心齋)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체를 제대로 받아 모시고자 한다면 마음에 담아두기에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그전에 고해성사로 그 죄를 미리 없애야 합니다. 또, 성체를 오롯이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기 한 시간 전에는 물과 약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심재는 성체께 드리는 공경의 표시입니다. 다만, 노인이나 환자,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예외적으로 영성체 전 한 시간 내 무엇을 먹었다 하더라도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919조 참조)

또, 성체를 모시러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경과 정중함, 기쁨을 나타내는 행동과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가톨릭 예법의 어떤 성찬례든 그 예식에 참여하여 성체를 모실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가능하면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하고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교회법 제920조 참조)

영성체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할 수 있지만, 본당에서는, 특히 주일 미사 때는 서서 하기를 권합니다. 또,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는 성체 앞에 공경을 표하는 동작으로 정중하게 깊은 절을 합니다. 이때 절은 성체 분배자 앞에 서기 한두 사람 전에 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러고는 사제나 부제, 또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말하면, ‘아멘’ 이라고 소리 내어 응답하고 입이나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손으로 받아 모실 때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며 왼손바닥을 펴고 적당한 높이로 올려 성체가 안정적으로 놓일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성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체를 받은 다음에는 한 발 정도 옆으로 가 멈춰 서서 곧바로 모십니다. 즉시 모시지 않고 성체를 들고 멀리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0-161항, 274항 참조)

하루 두 번까지 영성체할 수 있어

모든 신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영성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했다면 두 번까지는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몸이 아프고 불편해 성당에 나올 수 없는 병자나 노인 신자들을 위해 직접 그들을 찾아가 영성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흔히 봉성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병자 영성체입니다. 병자 영성체를 원할 경우는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방문 날짜를 정해 사제가 집이나 병원으로 방문해 해당 병자 혹은 노인이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영성체! 이제 그 효과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주 받아 모시고 성체성사의 삶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겠죠? 예수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영성체 되시길 바랍니다.

22_고해성사

참회와 화해의 성사

여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있습니다. 켠 눈과 야윈 얼굴. 자신의 잘못을 아프게 뉘우치면서도 쉽게 용기 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자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의 등에 땀이 맺힙니다. 잠시 후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빛을 느낍니다. 자책과 두려움을 감싸주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세례받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늘 죄의 유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참된 나 자신과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단절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해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두가지 핵심 요소

그럼 고해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의 일, 곧 통회, 고백, 보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먼저 통회(痛悔)는 죄지은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는 하느님께 하듯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여야 합니다. 또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성사인 고해성사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사제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 사제는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사죄경을 외웁니다. 사제의 사죄경에 대하여 참회자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補贖)을 해야 합니다. 보속은 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갚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최소한의 갚음으로 사제가 준 보속을 꼭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비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끝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는 절망 속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 다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먼저 달려 나와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이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23_병자성사

요셉씨는 요즘 노환으로 누워 계신 팔순 아버지 때문에 직장에도 나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위중해지셔서 중환자실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집으로 다시 모시긴 했지만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요셉씨에게 구역 반장인 안드레아씨가 병자성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병자성사는 웬지 돌아가실 때 받는 것 같아서 요셉씨는 아직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아씨는 병자성사는 환자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성사이기도 하라며,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니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본당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요셉씨는 병자성사를 신청하러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병자성사는 우리가 아플 때 하느님께서 잡아주시는 힘센 손입니다. 우리가 병약해져서 슬프고 외로울 때 하느님께서 안아주시는 위로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귀 먹은 이의 귀를 열어 주시고,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피부를 물로 씻어 낫게 하시고, 앓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병자성사는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연민이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병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마태 25,36)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고쳐 주시는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 행위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건강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기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질병과 고통이 뜻하는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봉사하는 삶에 함께하도록 하시고,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 주어라.” (마태 10,8)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 16,18)

그래서 병자성사의 은총은 중병의 고통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위로, 평화와 용기입니다. 이 은총으로 병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쉽게 절망과 좌절에 빠져드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말입니다.

또한, 병자성사는 성령이 주시는 도움으로 병자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육체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병자가 지은 죄의 용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자성사는 본 성사에 앞서 고해성사를 받게 하고, 병자 도유를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성체를 모시게 하는데요. 이를 노자 성체라고 합니다.

병자성사는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몇 번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다가도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위중한 수술을 받기 전이나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을 때, 육신의 고통으로 영혼마저 두려울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탈출 15,26)

병자성사로 우리는 고통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위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죽음에 맞서는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로 우리는 설령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지라도, 결코 슬프지 않고 기쁨 속에 떠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참희망을 병자성사를 통해 얻습니다.

24_성품성사

성품성사의 의미

성품성사는 하느님 백성과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별된 이들을 서품으로 축성하고 직무 사제직을 수여하는 성사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한 서품으로 교회의 품계에 참여하고, 주교의 안수와 축성 기도로 축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와 기도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한정적이었고 결정적인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당신 자신을 예물로 바치시며 이루신 유일한 십자가 제사로써 하느님 구원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대사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를 보편 사제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도록 마련된 직무 사제직이 있습니다. 이 직무 사제직은 성품성사로 수여되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며, 신자들을 도와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합니다. 특별히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사를 집행하고 봉사하는 세 가지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품성사 통해 교회 지도자 자격 갖춰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자유로이 독신 생활을 할 준비가 갖춰져 있고, 그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세례받은 남자에게 성품성사를 줍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품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소명에 의한

것입니다. 이를 성소(聖召)라고 합니다.

이에 응답한 이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사제단의 일원이 되고,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자 봉사자로서 적합한 삶을 살도록 양성됩니다.

성품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세 가지 품계가 있는데요. 모두 ‘서품’(敍品)이라고 하는 성사적 행위를 통해 주어집니다. 성품성사 예식은 주교의 안수와 장엄한 축성 기도로 이뤄집니다. 이는 서품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성사나 견진성사와 마찬가지로 성품성사도 영적 인호가 새겨집니다.

성품성사의 가장 큰 은총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사제는 성체성사의 거행과 복음의 선포, 죄의 용서와 병자의 도유 등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현할 때 그리스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그리스도와 사제직으로 일치하여 세상에 현존하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성직자를 통하여 실제로 활동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표양으로 살아갈 의무를 지닙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사제들을 위한 기도’ 중)

25_혼인성사

자식의 양극이 끌리듯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립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은 인류를 지탱해 온 뿌리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손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본성 깊은 곳에 혼인의 소명을 새겨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서로 끌리게 해서 짝을 이루는 혼인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또, 혼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혼인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배웁니다. 사랑은 우리의 근본 소명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혼인성사의 특징

일곱 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라면,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부부 사랑과 일치의 증진에 있습니다. 또,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의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해 전인격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한 번 맺어진 혼인이 그 결합의 영속성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서는 안 된다” (마태 19,6)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의 혼인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혼인성사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됩니다. 만약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할 경우에는 관면혼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 신자 배우자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들을 천주교회에서 세례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시키겠다고 서약해야 하며, 비신자 배우자가 이 서약의 내용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면혼인은 그 자체로도 유효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혼인입니다.

혼인을 교회법으로 규정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을 교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비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면혼인과 같이 교회의 관면을 요청하여 그 장애를 제거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주님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부부의 기도’ 중에서)

26_준성사

가톨릭교회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징과 상징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사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그 은총을 이루어 주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전례 생활 대부분은 일곱 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성사들 이외에 교회가 중개자로 나서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준성사가 있습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지만, 준성사는 교회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는 성사를 생활화하고 성사들 고유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생활에 필요한 장소, 유익한 물건, 신분, 직무 등을 거룩하게 하고자 준성사를 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준성사는 축복과 축성입니다.

축복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교사들의 축복, 새 집의 축복, 가게의 축복, 교통수단의 축복, 성물의 축복 등이 있습니다. 간혹 ‘축복’과 ‘강복’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축복’은 ‘하느님께 복을 빈다’는 뜻이고, ‘강복’은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이라는 뜻이기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 종류에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사 거행과 달리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로 받는 보편 사제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축복 예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사 전후에 바치는 축복입니다. 이 밖에도 부모는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차 축복, 집 축복 등에 대해서도 축복 예식에 마련된 절차와 형식을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데요. 사제나 부제가 있을 경

우에는 사제나 부제가 집전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이나 성사 생활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축복은 직무 사제직을 받은 주교, 사제, 부제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은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하여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성품성사 때, 주교 성성 때, 제대와 축성 성유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된 물건과 장소는 전례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되는 사람도 축성되는데요. 이로써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성은 서품과는 다릅니다. 서품은 성사로서 안수와 축성 기도로 ‘거룩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驅魔) 역시 준성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악마의 세력에서 보호하길 청합니다. 또 세례 때마다 사제는 구마 기도를 통해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공적인 구마 의식은 교회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우리 신앙심을 북돋아 주며 성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묵주, 성패, 성화 등을 부적이나 행운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준성사는 신앙과 봉헌의 정신으로만 사용돼야지 결코 미신적인 행위로 이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준성사! 잘 이용한다면 교회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행위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릴 뿐만 아니라 악마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27_죽음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고 반드시 죽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죽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생활의 마침입니다. 죽음은 또 인간의 원죄로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소멸의 공포를 주는 죽음은 창조주 하느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인간의 육체적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파멸돼야 할 원수’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심판은 죽음 직후 이루어지는 개별 심판과 세상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개별 심판은 살아 있던 동안의 행실과 믿음에 대해 셈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연옥이나 지옥이나 천국에 들게 됩니다. 또 최후 심판은 승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총체적 심판입니다. 지상에서 이뤄지지 못한 정의가 바로 서고 하느님 자비 안에서 용서와 구원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개별 심판 이후에 들게 될 연옥과 지옥과 천국을 살펴보면, 먼저 연옥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인간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 그분과 온전한 일치를 위해 겪는 정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옥은 지옥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천국을 향해 열려 있을 뿐이고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공간입니다. 지상의 우리는 죽은 이

들의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사랑이 사후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죽음의 경계 너머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결정적으로 단절된 이들의 최종 운명입니다. 또 지옥은 하느님과 복된 이들과 이루는 친교를 결정적으로 ‘스스로 거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지옥이 하느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거듭 당신과의 친교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초대를 끝까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지옥의 상태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하느님과의 궁극적 만남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 그분과 나누는 친교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느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또 성령과 함께 지금도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사, 그리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때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국 자신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죽음 뒤의 환생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죽음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사랑과 은총을 이웃과 모든 피조물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집회 7,36)

28_연옥과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천국, 연옥, 지옥.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는 모두 수험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목표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지옥은 피하고 싶지만 혹시 몰라 걱정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연옥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대부분 연옥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연옥에 대해서, 또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은 하느님과 일치, 하느님과 친교로 들어가기 위해 아직 다 씻어내지 못한 죄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연옥(煉獄)은 한자로 ‘불의 감옥’이라는 뜻이 있어 흔히들 ‘반쯤은 지옥’인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연옥은 지옥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물론 정화할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정화의 시간이나 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연옥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열려 있을 뿐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단죄나 엄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옥은 하느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친교를 보여줍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의 정화 기간과 엄중함을 단축하고 경감시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기도와 선업(善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스로를 위해 공로를 쌓을 수도 없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는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연옥 영혼에게 가 닿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전구는 지상의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지상에서든 천상에서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한 기도로 한 몸을 이루고, 또 친교를 이룹니다. 하느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럼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분들이 하느님께 전구해 줍니다. 그리고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하느님 곁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연옥 영혼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기일이나 설, 한가위 명절 때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1월 위령 성월에는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은 물론,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가톨릭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형제와 친척, 친구와 은인을 위한 기도를 바치거나 위령 기도를 바치며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식사 마침 기도를 바치며 죽은 이들의 영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성인들의 통공’에 따른 것입니다. 성인들의 통공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 곧 산 이와 천국에 있는 이들, 그리고 죽은 후에 정화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상, 오늘은 연옥과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9_교회의 장례와 제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해 오시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던 아버지가 끝내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형제들과 의논해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본당 사무실에 연락해서 장례 미사 일정도 잡았습니다. 장례 기간 많은 분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선종봉사회 분들을 비롯해 레지오 마리에 단원분들까지... 많은 신자분들이 오셔서 연도를 바쳐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슬픈 가운데에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아버지가 다니셨던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아버지를 맡겨드리는 장례 미사 안에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현세의 은총에서 내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은 이가 하루빨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시간이고, 나아가 자신에게 올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의 장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장례 절차는 임종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가족들은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상황에 따라 죽음을 앞둔 이에게 유언과 축복을 청하고 병자성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시작되면 임종을 돕는 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운명이 확인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운명 후에 바치는 기도를 올리며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후 정갈한 물로 얼굴을 씻어주고 손과 발을 가지런히 펴주며 두 손에 십자가나 묵주를 쥐어 주고 가슴 위에 얹고, 흙이불이나 하얀 보를 덮고 성수를 뿌린 후 가

죽과 친지, 본당에 알려 공동체의 기도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집이나 성당 영안실, 혹은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상주부터 분향한 후 문상을 받습니다.

문상은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을 갖추고 빈소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 후 고인과 상주에게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도록 합니다. 이후 장례 기간 내내 고인을 위해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죽음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보는 장례 2일 차 이후로 염습과 입관을 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빈소에서 나와 성당으로 향하는 출관을 하고, 성당에서 장례 미사와 고별식을 가집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성부께 봉헌함으로써 그 자녀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정화되어 하늘나라 식탁의 완전한 파스카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성부께 청합니다. 이렇게 거행된 성찬례를 통해 신자 공동체, 특히 죽은 이의 가족은 죽은 이가 한 지체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통공을 이루고, 죽은 이를 위하여 죽은 이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잠든’ 이와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미사에 이어 고별식이 이어집니다. 고별식은 교회가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또, 묘지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을 떠난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떠나는 이와 헤어짐과 그와의 친교, 그리고 재회를 노래합니다.

뒤이어 묘지나 화장장으로 가는 운구 예식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드러내는 매장을 전통적으로 장례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장도 허락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또, 유골을 허공이나 땅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골과 유골을 집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은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6항 참조)

“사실 우리는 죽어서도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그분께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테살로니카의 성 시메온, 「장례 예식에 대하여」, 367)

30_성인 공경

성인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하느님의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들,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산 이들... 살아생전의 덕행이나 순교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증인이자 본보기가 된 이들을 교회는 모든 신자의 귀감으로 선언하고 모두가 존경할 수 있도록 성인의 품위에 올립니다.

성인 공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순교자를 공경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로마 제국 박해 시절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순교자 무덤을 참배하고 미사와 기도를 드렸으며, 무덤 위에 성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순교하진 않았지만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이들도 공경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 범위가 넓어져 훌륭한 고행자나 수도자 또는 주교,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동정녀들을 순교자로 간주하고 ‘증거자’란 이름으로 공경하게 됐습니다.

성인 공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교 자유가 허용된 4세기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러다 5세기경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공경하는 이의 이름에 ‘성인’이란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교회 차원에서도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고 덕행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위해 성인이란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공경은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지례(欽崇之禮)’와는 구별됩니다. 유일신인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과 천사나 성인을 공경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신자들이 다신론에 빠질 위험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인 공경을 허락한 이유는 첫째, 성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위대한 업적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인들의 거룩한 생애나 업적을 본받도록 신자들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이미 하느님과 일치하여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아직 현세에서 구원의 길을 순

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들 마십시오. 죽은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의 통공 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인들 가운데서 찬미를 받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갚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빚내시나이다. 또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 (성인 감사송 1)

결국, 성인 공경은 하느님 흠숭의 방법의 하나이지 하느님 흠숭과 병행하거나 하느님 흠숭에서 독립된 신앙 행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인들을 어떻게 공경해 왔을까요?

초대 교회 신자들은 순교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날을 축일로 삼고 순교자의 무덤에 모여 예절을 거행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교자들만 공경하다가 점차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들, 높은 성덕을 보여준 수도자와 동정녀도 공경하게 되면서 축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널리 알려진 성인들의 축일 외에, 덜 알려진 성인들까지 한꺼번에 기념하는 축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축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입니다. 이 축일을 통해 모든 성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경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인이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은 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다가 간 하느님과 일치를 누리는 모든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 대축일은 가톨릭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축제일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희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31_한국의 순교 성인

“오늘 우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승리를 경축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환희와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 강론’ 중에서, 2014년 8월 16일)

한국 가톨릭교회는 현재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103위 성인은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집전으로 시성됐으며, 124위 복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집전으로 시복됐습니다. 또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은 마지막 ‘기적 심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교회는 현재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는 조선 왕조 치하에서 신앙을 위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공동체에서 주요 역할을 하다가 1785년에 순교한 이벽 요한 세례자를 비롯해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 암브로시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879년까지의 순교자들입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는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입니다. 1901년 제주교난 순교자들과와 한국전쟁 직후 공산당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박해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스무 명의 외국인 선교 사제와 세 명의 외국인 수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는 성 베네딕도회 덕원자치수도원구와 함흥대목구 지역에서 사목을 펼치다 한국전쟁 전후로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순교한 분들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순교 신앙은 제2의 박해기라고 부르는 한국전쟁 시기에 다시 한 번 불타올랐으며 우리 안에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이 행해지던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이 보여준 선택과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모범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순교 성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당대의 엄격한 신분 사회 구조와 맞서 형제적 나눔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모진 박해 속에서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견디며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박해 시대의 신앙 선조들처럼 피의 순교를 요구하는 박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의 거센 물결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순교를 요구합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안에서 복음적 삶에 충실히 응답하기 위해 매 순간 순교자적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마다 자기 길에서” 성덕의 소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 가정을 부양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남자와 여자,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노수도자”처럼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서, 곧 우리 옆집 이웃 안에서 성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1항 참조)

그렇기에 순교자들이 보여준 성덕의 표양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다양한 증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현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의 순교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애타게 바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2_천사

천사! 여러분은 ‘천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천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때로는 찾기도 하고 때로는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정말 존재할까요? 가톨릭교회는 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천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는 죄악이 창궐한 소돔을 멸망시킬 때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사악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멈추게 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 존재로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세례자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경배하고 시중들며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천사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이들도 천사들입니다.

나아가 교회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고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을 도와주며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또 교회는 장례 때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천상 낙원으로 데려가시어...” 하면서 천사들의 전구를 청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순수한 영적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뤄진 존재입니다.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죽음을 겪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긴 하지만 순수한 영적 존재이며 죽지 않습니다. 나아가 천사는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인격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는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이며, 하느님의 사신, 전령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 계획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332항)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천사의 이름은 성경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입니다.

‘누가 하느님 같으랴’ 라는 뜻의 미카엘 천사는 악마와 싸우는 천상 군대의 대장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영웅, 힘’ 이란 뜻의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파견되었듯이 하느님의 말씀과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며, ‘하느님께서 고쳐 주셨다’ 는 뜻인 라파엘 천사는 토빗의 눈을 고쳐주고 토비아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의 치유자, 길잡이의 천사입니다. 또 성경에 바탕을 둔 천사에 대한 믿음은 수호천사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롯을 구하는 이야기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 (시편 34,8)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작은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마태 18,10)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336항)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천사들의 도움을 청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상의 천사들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33_향주덕

“덕은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몸에 뱀 확고한 마음가짐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803항)

우리는 흔히 훌륭한 품성이나 바람직한 인격을 보고 ‘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덕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여 고귀한 인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덕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그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에서의 덕은 자신의 인격적 완성에 있지 않습니다. 덕이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 항상 하느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덕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갖추 수 없는 신적인 덕이 있습니다. 이 신적인 덕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구원의 자격을 얻게 하고자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의 인간적인 덕, 사추덕

먼저 ‘인간적인 덕’은 예지(현명),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이 네 가지의 덕은 모든 덕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하여 ‘사추덕’(四樞德)이라고 부릅니다.

‘예지(현명)’의 덕은 우리가 참된 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바른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정의’의 덕은 하느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게 합니다. ‘용기’의 덕은 어려움과 유혹 중에도 우리의 도리를 바르게 견게 합니다. ‘절제’의 덕은 우리의 능력과 재물과 시간 등을 바르게 사용하고 절도와 중용을 지키게 합니다.

믿음·희망·사랑의 신적인 덕

다음으로 ‘신적인 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은 하느님을 향한 덕이기에 ‘향주덕’(向主德)이라 불립니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향주덕은 성령의 은총에 원천이 있고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에 목적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하는 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인간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다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은 언제나 피어오릅니다. 희망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은총의 도움으로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실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818항)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활동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희망은 세상의 격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랑은 덕의 바탕이므로 모든 덕들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요한 15,10)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운 영적 자유를 줍니다.

하느님께서 부어 주신 세 가지 향주덕은 우리의 능력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도록 하고 그분의 활동을 보증해 주는 천상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이며, 이 세상 선과 악의 싸움터에서 승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무장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다.”(1테살 5,8)

34_십계명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삶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새 길을 걸어가는 데는 지도와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와 이정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삶의 지도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삶의 조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애뜻한 사랑의 요청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의 그 애뜻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을 알아 뵈고 그분께 바치는 충성이며, 감사의 예배 행위이고, 하느님께서 역사를 통해 추진하시는 계획에 협력하는 것”(「가톨릭교회 교리서」 2062항)입니다.

신약으로 새롭게 완성돼

그리고 구약의 계명인 십계명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거론하시며 이를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자 그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19,16-22 참조)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형제에게 성을 내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마태 22,37-40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십계명을 받아들이셨고,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십계명의 참의미를 밝혀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 해석돼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각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흠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마태 19,16-17)

35_양심 성찰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며 악습을 고치지 못한 채 다시금 죄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개인적으로 양심 성찰을 하고 침묵 중에 나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해 살펴보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봅니다.

▶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간청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까?
- 성경이나 교회 서적을 정기적으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 하느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거나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 권력이나 돈을 하느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까?
- 점, 사주, 타로 등을 보며 이에 의지한 적은 없습니까?

▶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 죄를 저지르면서 혹은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 하느님 이름을 두고 거짓된 맹세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 하느님 이름을 내가 소망하는 일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 신앙생활을 현세적인 어떤 이익과 결부시키지는 않았습니까?
- 신자임을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 셋째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 일과 교회의 축일에 미사와 전례에 참여하고 해마다 고해성사를 받았습니까?
- 가족, 친지들을 찾아보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거나,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 휴식을 핑계로 지나친 오락이나 취미 활동에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존경하였습니까?
- 부모로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 세상을 떠난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실천했습니까?
-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 다섯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 가족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 가족이나 누군가의 육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준 일은 없습니까?
- 당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살펴보며 헤아리고 있습니까?
- 고의로 유산을 시키거나 낙태에 협조한 적은 없습니까?

▶ 여섯째와 아홉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 부부로서 신의를 지키고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마음에 품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 간음, 매매춘, 강간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 의식적으로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 일곱째와 열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 노력이나 시간을 탐내고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 재산이나 노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 약속이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었습니까?
-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았습니까?

▶ 여덟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 말로써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 명예나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 누군가를 위해 위로와 칭찬을 하기보다 비난과 비평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 당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까?

◎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
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통회 기도)

36_생명 존중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아니 정확하게는 자주 착각을 하는데요. 수만 년, 혹은 수억 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무에서 유로 만든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하나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 1,3)

맞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들을 누리고, 품고, 돌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 뜻에 맞게 잘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당신 닮은 모습으로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직접 빚어 만드신 인간 생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괴하거나 죽이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

우리에게는 생명을 해치거나 손상시키거나 조작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인과 낙태, 안락사와 자살과 같은 직접적이고도 고의적인 생명 파괴 행위는 물론이고, 이를 위한 그 어떤 협력도 금지합니다.

또한 장기매매와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인공수정,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와 같이 생명을 인간의 목적으로 사고팔고, 생성시키고, 조작하는 것에 단호히 맞섭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부부가 협력함으로써 이뤄집니다. 부부의 사랑

과 ‘특별하고도 독점적인 행위’인 부부관계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힘이나 기술로 만들고 생산하는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국가 형벌로 채택하는 ‘사형제’도 분명히 반대합니다. 인간 생명은 오직 하느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고 가르칩니다.

인간 생명은 잉태되는 그 첫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합니다. 그 누구의 개입으로 손상 받거나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 생명뿐 아니라 자연 안의 모든 생명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 마리아, 새 세상의 빛나는 새벽이시며 살아 있는 이들의 어머니!
생명의 모든 원리를 당신께 맡겨 드리나이다.
곁어보소서, 성모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아기들을 곁어보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을 곁어보소서.
무지한 폭력의 제물이 되고 있는 남녀들을 곁어보소서.
무관심이나 그릇된 자비로 죽어가고 있는 노인과 병자들을 곁어보소서.
당신 아드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정직과 사랑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영원히 새로운 선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어 주소서.
일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경축하는 기쁨을 얻어 주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단호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 주소서.

그리하여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진리와 사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생명의 복음」 105항)

37_봉사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우리의 보호자이자 협조자로 성령을 파견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께로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하느님께 봉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잘 이해하고 새겨 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이웃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은 모두 다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니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대받는 이들, 병든 이들과 함께하시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봉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겸손하게 하느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참된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었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실 봉사는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또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욕심으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다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는 것은 봉사의 올바른 정신도 아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세레나 봉사나 다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봉사는 사랑의 마음, 섬김의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봉사의 자세를 본받아 서로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기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봉사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몸은 설령 힘들지라도 하느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봉사는 결국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과 나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체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전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의 도구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봉사. 이제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38_주님의 기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 11,1)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던 제자의 청원에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님의 기도’ 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를 요약한 기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는 기도라서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 지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 라고 친숙하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분을 ‘아버지’ 라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의 상속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 은 그분의 위엄과 의인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찬미와 흠숭, 그리고 자녀다운 사랑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 일곱 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 세 가지 청원은 우리가 ‘아버지’ 를 향하도록 청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길 기도하는 것’은 그 거룩한 빛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거룩하게 알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도록 우리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가 오길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온통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데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깨어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나머지 네 가지 청원을 바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네 가지 청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양식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넉넉한 양식을 청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필요한 양식만 청하라고 하십니다. ‘하루의 양식을 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항상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사 안에서 말씀과 성체의 양식을 받아 모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좀처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의 잘못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 사이에서 싸우고 있기에 늘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에 ‘동의’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느님과 함께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 악마 등 하느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구원사업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이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스승이며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하고, 우리가 청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매일이 되시기를 빕니다.

39_기도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바치는 내용과 지향에 따라 ‘청원과 전구’, ‘감사와 찬미’, ‘흠숭과 찬양’으로 나뉩니다.

먼저 ‘청원 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청원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인간은 한낱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구’는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게 해주는 청원 기도의 하나로,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시는 ‘전구자’였습니다.

‘감사 기도’는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청을 들어주셨을 때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슬픔, 또 모든 사건과 필요가 그리스도인에겐 감사의 대상이며, 감사드릴 동기입니다.

‘찬미’는 기도의 기본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흠숭’은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 내신 구세주의 권능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흠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간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찬양’은 하느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

느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기리고 하느님이시기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바치는 형태에 따라 ‘소리 기도’, ‘묵상 기도’, ‘관상 기도’로 나뉩니다.

소리 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염경 기도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 삼종 기도, 시간전례 등 정해진 기도문을 혼자, 또는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는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영성 서적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관상 기도’는 기도문도 사용하지 않고 생각도 정지시키고 하느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퇴도록이면 밤에,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형제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청한 것을 받기 전에 주실 분에게 먼저 감사와 신뢰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께 온전히 당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바치기를 권합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삼중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시간 전례는 날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전체가 기도의 소재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걸 청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청을 뛰어넘고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느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할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든든할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40_성체 조배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미사가 끝난 뒤 남겨둔 거룩한 빵의 형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그 형상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미사 밖에서도 성체 앞에서 기도드리므로써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 밖에서 성체 앞에 기도드리는 것으로는 성체조배, 성체 강복, 성체 거동, 성체 현시, 성체 대회 등이 있습니다.

초세기 신자들은 영성체를 위하여 엄격한 규정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체에 대한 공경이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13세기부터 성체조배를 통한 성체 공경 신심이 교회 안에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성체조배는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믿으며, 깊은 침묵 중에 그분과 마주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실 안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비추고 가르치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체조배는 내 전 존재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일대일로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때입니다. 성체조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볼 수 있고,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깊고도 내밀한 고민을 낱알이 그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는 나의 모든 시간과 일, 나의 모든 생각과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바로 잡게 하는 통로이며 힘입니다.

그러면 성체조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사 전에 성체조배를 하면 개인적으로 미사를 준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미사 후에 하면 예수님과 더욱 깊고 지속적인 일치를 갖게 됩니다. 성체조배는 어떤 정해진 규정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방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체조배를 위해 성당 또는 소성당으로 갈 때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둘째, 성당이나 소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바칩니다.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셋째, 자리에 앉기 전에 주님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여 계심을 받아들이면서 성체가 모셔진 곳을 향하여 깊은 절을 합니다.

넷째, 기도를 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긴장을 풁니다.

다섯째, 주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거나 주님이 앞에 있다고 상상하거나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여섯째,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침묵 안에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머무르면서 응답을 드리는 기도를 바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되새김입니다. 성체조배 중에 있었던 내용을 되새겨 보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 감사드리고, 어떤 실천을 결심했으면 그에 필요한 은총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 공손히 인사드리고 조배를 마칩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성체조배 때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 노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처럼 예수님의 품에 바짝 기대어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41_묵주 기도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묵주기도 아닐까요? 여러분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기도와 달리 묵주 알을 굴리면서 바치고, ‘성모님께 바치고…’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고, 기도문을 외고, 신비도 묵상하면서 바치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까요?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을 1단으로 삼아 각 단마다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깊은 기도입니다.

먼저 로사리오라고도 불리는 묵주기도란 말은 ‘장미 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 ‘로사리움(Rosarium)’에서 나왔습니다. 박해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자들이 원형경 기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요. 그러면 박해를 피한 신자들이 몰래 그 시신을 거둬들이면서 장미관을 모아놓고 꽃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바쳤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고대 교회 사막의 은수자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 매일 주님의 기도나 시편을 50편, 100편 또는 150편씩 바쳤는데요. 이때 바치는 횟수를 세기 위해 작은 돌멩이나 곡식알 같은 것을 실로 묶어서 굴렸는데 거기서 묵주기도의 유래를 찾기도 합니다.

한편, 묵주기도가 성모님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2세기 이후 삼종기도 등이 보급되어 성모 신심이 깊어지면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50번, 100번씩 바치던 신자들이 이즈음부터는 성모송을 대신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묵주기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5세기에 와서였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랑 드 라 로슈 수사가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나누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했고,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전통적인 15단 묵주기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교황’이라 불렸던 비오 5세 교황이 1569년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각 단별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요일별로 신비를 달리해서 바치도록 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2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전통적으로 묵상하던 환희, 고통, 영광, 이 세 가지 신비와 함께 그리스도 생애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생활 중 중요한 다섯 사건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해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시작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신 공생활과 인류 구원을 위한 수난과 십자가 희생,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또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묵주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관상 기도임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또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그리스도께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드립니다.

나아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각 단의 신비를 제대로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한 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울 때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신비에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묵주기도는 어떻게 바칠까요? 먼저 묵주의 십자가상을 잡은 채 예수님의 발 부분에 입을 맞추고 성호경과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다음 묵주 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 후, 세 개의 알을 차례로 넘기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음의 묵주 알을 잡고 머리를 숙이며 영광송을 한 후,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중 하나의 묵상 주제를 택해 그 신비의 1단을 외우고,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묵주알 10개를 넘기면서 성모송 10번을 하며 묵상하기로 한 신비의 1단을 묵상합니다. 이후 다음 알을 잡고 영광송과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면서 1단을 마칩니다.

이어서 그 신비의 2단을 외운 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을 10번 하면서 2단의 신비를 묵상하고,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같은 방법으로 3단, 4단, 5단을 바칩니다.

마지막 5단의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 뒤에는 성모찬송을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을 하고 묵주기도를 마칩니다.

묵주기도는 요일마다 다른 신비를 바치도록 권고하는데요.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예수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과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강림,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영광의 신비를,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공생함과 관련된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칩니다.

이상 묵주기도의 특성과 유래, 그리고 바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묵주기도를 더욱 열심히 바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42_피정

여러분은 피정을 자주 가시는지요? 피정(避靜)은 ‘세속을 피하고 고요함을 따른다’ 또는 ‘세상을 피하여 고요하게 마음을 지닌다’ 라는 뜻입니다. 곧 ‘번잡하고 어수선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하느님과 가까이하는 길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과 반성으로 양심을 깨끗이 하는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휴가’, ‘주님 안에서 조용히 쉬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정은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사나 인간적인 일로 떨어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는 하느님 뜻 안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삶의 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외적·인간적 욕망과 주위의 많은 요소 때문에 이를 쉽게 방해받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일에 묻혀 하느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삶의 길에서 자주 벗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삶의 현장을 잠시 떠나서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느님과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피정은 내 눈을 하느님께 다시 맞추고, 내 삶을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물러나 오직 하느님과 함께 머무시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곧 시작할 공생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공생활을 앞두고 광야로 가셔서 단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모범 삼아, 중요한 일을 앞두고나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을 때 광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으로 전해져 오늘날의 ‘피정’이 된 것입니다.

피정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이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정은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이 세상에 내시고 나를 속속들이 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떠나라!” 입니다. 자신의 여러 내적, 외적 집착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란한 주위 환경과 일에서 떠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매여 있는 모든 일에서 떠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데 좋은 마음 자세입니다.

둘째, “향하라!” 입니다. 자신을 매어 놓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비워서 자신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마음의 초점을 계속 하느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맡기라!” 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을 믿듯이 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넷째, “응답하라!” 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정 중에 만난 하느님의 빛과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그에 대한 나의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고 소박한 응답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눈 맞춤과 주고받는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피정!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 맞춤과 사랑 맞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과의 눈 맞춤과 사랑 맞춤을 통할 때 진정한 평화와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사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산란할 때, 나도 모르게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졌다고 느낄 때, 피정! 모든 걸 멈추고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43_성지 순례

지팡이에 물통 하나 메고 길을 떠납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 자갈길을 헤치며 걸음을 옮깁니다. 향하는 곳은 성지, 하느님의 구원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래아 호수...

성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습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우리를 위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곳입니다. 성지순례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존하신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내 발길은 앞을 향하지만 내 마음은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성지순례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룩하고 성스러운 땅, 즉 성지와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곳, 혹은 성인들의 유적이 있는 곳을 방문해 경배를 드리는 신심 행위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를 찾아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화 예식을 거행하고 축제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지 순례를 시작한 것은 2세기경부터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흠숭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서 간 성인들을 존경하고, 또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자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시고 하느님의 계시가 특별히 나타난 팔레스티나 지역을 동경하고 순례했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 바오로 대성전 등 순교 성인들의 유적지와 기적과 관련된 지역을 순례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모 발현지와 성인들의 탄생지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보다 경건한 마음과 기도입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관광이나 여행이 아닌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 우리를 성찰과 회개로 이끌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순례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동행하시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느끼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성지 순례지로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 하느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팔레스티나 지역, 초기 교회 순교자들이 묻혀 있는 로마 지역, 과달루페, 루르드, 파티마 등의 성모 발현지, 사도 야고보가 묻힌 곳을 찾아가는 산티아고의 길,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성인들의 탄생지나 활동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지순례지로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 그리고 무명 순교자들의 순교지와 묘소, 탄생지와 은신처를 비롯해 박해 시대 교우들이 모여 살던 교우촌, 전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다니던 길 등 전국 각지에 2백여 곳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질 수 있습니다.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그 장소에 얹힌 종교적인 전승을 체험하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례는 단순히 지상에서의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 예루살렘을 향한 영적 순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곁에 다다르기 전에는 언제나 순례자!” 이기에 지상생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참 순례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 시온의 하느님 앞에 나섭니다.”

44_금식재와 금육재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뭇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금식재와 금육재. 여러분, 많이 들어 보셨죠? 많이 들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그동안 잘 못 지키셨다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한 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늘은 금식재와 금육재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식재는 하루 중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이고, 금육재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언제 하는지 살펴보면요, 연중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인 금요일,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고,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육재뿐만 아니라 금식재도 함께 지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수난에 잠시나마 동참하고, 우리와 이웃들이 지은 각종 죄악을 보속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절약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금식재와 금육재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을 향하도록 바로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금육재로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로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재와 금육재는 언제, 또 왜 생겼을까요?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는 오늘날처럼 부활절과 부활 사건을 기리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고행을 실천하며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의미로 부활 축일 전 하루나 이틀 동안 단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황을 시작

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것을 따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단식하는 사순절이 생겼습니다. 금식은 본래 그날 한 끼만 제대로 식사하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육식과 술을 금하는 금육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금식재나 금육재는 부활 준비와 자선이라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시대와 지역,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6년부터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속죄와 금식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회의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식과 금육 규정의 완화가 ‘재를 지킴’의 폐지, 또는 의미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시대에 맞는 절제와 극기를 통해 ‘금식과 금육의 재 지킴’의 근본 정신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중 금요일에 지키는 금육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식재와 금육재를 통해 절약된 뭇은 자선 사업에 사용합니다. 단순히 금식과 금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를 통해 절약한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데 그 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식재와 금육재는 참회의 정신으로 극기를 실천하여 내적·외적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며, 절제의 미덕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 즉 자선은 무엇일까요? 자선은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역시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께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저절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미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베풀면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해 주소서. 제가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45_미사 예물과 교무금과 헌금

초대 교회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러 올 때 성찬 전례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를 바구니에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성체를 받아 모신 다음 다 함께 둘러앉아 그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둔 빵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때의 빵과 포도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마련한 물건들은 모두 오늘날 미사 예물과 헌금과 교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인 미사 예물과 헌금과 교무금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바치는 걸까요? 먼저 ‘미사 예물’은 우리가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드리고자 할 때 교회와 사제에게 전하는 금전 또는 예물을 말합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최후의 만찬 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신자 개인에게는 물론,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중심인 미사에 신자들은 올바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미사 지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비롯해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올릴 수 있으며, 살아 있는 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 이를 위해 지향을 두면 ‘생미사’, 죽은 이를 위하여 두면 ‘연미사’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의 발전과 세계 평화,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한 일반 지향을 둘 수 있고, 어떤 개인을 위해 건강과 은총을 청하는 개별 지향도 둘 수 있습니다.

미사 지향 신청 방법은 본당 사무실에 가셔서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원하는 날짜와 지향 내용을 적어서 미사 예물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일 교중 미사는 모든 신자를 위한 미사이므로 미사 지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헌금’은 미사 예물과 달리 모든 신자가 내야 하는 봉헌금입니다. 미사 중에 신자들은 성찬 전례의 시작인 예물을 준비할 때 헌금을 바칩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성찬 전례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와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바치던 물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무금은 교회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신자들이 저마다 스스로 정한 대로 내놓는 헌금입니다. 교무금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본당 사목과 복음화 활동, 시설 확충과 유지, 사목자의 생활비와 직원 인건비 등 본당과 교회 발전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교무금은 어느 정도로 내는 것이 적당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먼저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내 정성을 바치는 것이기에 모자라지도 않고 또 부담되지도 않게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정성껏, 기쁘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치는 예물은 교회의 유지와 교회가 행하는 자선의 물적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치는 미사 예물과 헌금과 교무금은 교회 공동체의 활동에 나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6_미신 행위

“너희 궁합은 봤니?” “타로카드 안 해 볼래?” “손 없는 날은 언제지?”

이런 말 가끔 들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가톨릭교회는 이런 행위를 모두 미신 행위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냥 재미로 몇 번 봤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잘 모르고, 혹은 일종의 풍습인 줄 알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미신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빠질 수 있는 미신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신이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미신 행위는 신앙적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미신 행위로는 먼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를 들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잡신이나 마귀, 악마를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형태의 점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점 봐주는 사람을 찾아가 올해의 운세를 물어보거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물어보는 일, 사주를 보러 가서 앞날의 일을 알아보거나 결혼 전 궁합을 보는 일, 이사하기 좋은 날을 찾거나 사주에 맞춰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 사람은 단 한 번 지상에서 살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생을 궁금해하며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도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뒤에는 하느님을 배제하고 시간과 역사, 운명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미래에 대한 불건전한 호기심을 버리고 하느님께 모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미신 행위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느님을 공경하

는 것' 입니다. 이 역시 하느님의 첫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인데요, '불경' 이라고도 합니다. 불경이란 하느님을 시험하거나 하느님을 함부로 보는 신성 모독 행위를 말합니다. 하느님을 시험하는 건, 하느님의 능력을 두고 어떤 효과를 바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 고 한다거나, 병이 났는데도 치료받길 거절하고 오로지 기도만으로 낫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느님을 함부로 보고 하느님께 함부로 하는 신성 모독 행위는 성사나 전례,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는 무거운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이며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금하는 미신 행위. 아는 만큼 피하고 모르는 만큼 빠져드는 거겠죠? 이제 하느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느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게 무엇인지 다들 알게 되셨으니 앞으로는 우리 모두 미신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47_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주님 성탄 대축일. 한 성당에서 성탄 대축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자리에 낯선 손님이 보입니다. 미사가 끝날 무렵 앞으로 나와 성탄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몇 달 뒤 부처님 오신 날. 가톨릭교회 성직자가 화환을 들고 절을 찾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따뜻한 박수가 퍼집니다. 여긴 정교회 주교좌성당. 로만칼라를 한 부제들이 정교회 주교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얼굴들이 사뭇 진지합니다. 해마다 전국의 신학교 부제들이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성공회, 정교회 등 이웃 종교를 탐방합니다. 사제품을 받기 전에 이웃 종교와 타 교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종교 간 분쟁이 거의 없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 신자인 우리는 타 종교, 타 종파에 대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먼저 가톨릭교회는 타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을 그 어느 것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교회의 진리와 가르침을 다른 종교나 문화적인 가치와 혼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보편적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기원을 갖는 인류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타종교인을 포함해 모든 민족들 안에 뿌려져 있다고 여기며, 그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또한 이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와 사회 정의, 인간 사랑과 같은 공동선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역사 안에서 분열된 그리스도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치시키려

는 노력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원래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여러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1054년 성화상 논쟁으로 동서가 갈라져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는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를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부릅니다. 개신교회는 또 교리 논쟁과 사상적 분쟁으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성결교, 침례교 등 다시 다양한 교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일치와 협력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1월 18일부터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인 1월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한국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는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기도회를 갖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교 일치의 첫걸음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